

'폼바' 김시라의 예술정신 잇다

무안 예술인 주축 '인의예술회' 30일까지 무등갤러리 전시 박문중·박성안 등 작가 30명 참여... '폼바' 계승 작업도 진행

무안 일로에서 탄생한 '폼바'는 연극인·시인, 화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김시라(1945~2001) 선생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이다. '각설이 타령'에서 모티브를 빌어온 1인극 '폼바'는 서민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해학과 풍자로 사회에 쓴소리를 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됐다.

김시라 선생은 무안에서 활동하며 문화예술인들과 모임을 만들고 책박한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꽃을 피웠다. 1977년 무안 인의산에서 이름을 따온 '인의(仁義)예술회'를 조직, 초대 회장을 맡았고 이후 화가 박문중, 서예가 박성안 등이 2대와 3대 회장을 역임했다. '인의예술회'는 매년 '폼바'를 비롯해 '장군명군', '진실의 노크소리인가', '춘풍의 처' 등 연극을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전시회 등도 개최하며 1986년까지 활발히 행사를 이어갔지만 아쉽게도 오랫동안 활동이 주춤했다.

지난 2019년 사단법인을 출범시키며 모임을 재정비한 '인의예술회' (회장 김기형)는 무안에서 종합작품전, 세미나, 연극 음악 행사 등을 치르며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재도약에 나선다.

오는 3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인의예술회 12회 작품전'에는 무안 출신 예술인 뿐 아니라 서울, 대구, 대구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한국화, 서양화, 서예, 민화, 서각, 서화, 도예, 사진,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작은 박문중의 '청보리 밭에서', 정남선의 '백호의 꿈-사랑', 정덕근 작 '엄마누엘', 박성안 작 '바람에게', 박일정 작 '동백', 김승민 작 '엄마' 등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무안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독후화 그리기 대회' 입상작도 함께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무안에서 탄생한 '폼바'에 대해 알리고, 어릴 적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인의예술회'는 앞으로 '폼바'로 이름을 알린 배우 정규수와 '김시라 폼바' 알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故) 김시라 '인의예술회' 초대회장



박문중 작 '청보리 밭에서'

이산가족 염원의 소리 '허허허'

'김원중의 달거리'... 28일 유튜브 공연

2003년부터 매년 남북단 등 우리 민족의 아픈 현실을 주제로 평화를 노래해온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올해도 계속된다.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샌드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평화콘서트로 자리매김 한 '뽕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이하 김원중의 달거리) 올해 첫 번째 공연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중계로 시작된다.

'김원중의 달거리'는 지금까지 지역의 아티스트와 청년음악인의 공연을 통해 우리의 삶 곳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는 느티나무밴드, 블루스밴드 Mind, Body & Soul을 비롯해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주홍, 소프라노 유영민, 리디안팩토리,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프롤로그, 바닷프로젝트, 우물안개구리, 여울, 이진우가 참여하며 사진작가 리일전, 화가 한희원 등 지역의 예술인들과 초대손님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119번째를 맞은 이번 6월 공연의 주제는 '허허허'다. 70여 년의 세월을 가족과 생이별한 채 비탄에 잠겨 살아온 1000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끝내자는 염원을 담았으며, 가수 김원중과 청년예술인 박성언(기타), 장혜란(건반), 이정우(퍼커션)와 초대손님 소프라노 이인영, 문지은 시인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원중의 신곡도 만날 수 있다. 김 씨가 작사·작곡 한 '허허허'를 비롯해 정희성 시인과 문지은 시인 작품에 김 씨가 곡을 붙인 '연두', '견갑' 등을 들려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음악대학 석과 교수이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



소프라노 이인영



시인 문지은

노 이인영은 칸초체부터 가곡까지 다양한 곡을 준비했다.

아울러 2015년 '발견'으로 등단해 작품활동을 시작한 문지은 시인의 서사시집 '치병소요록(병을 다스리며 보낸 시간들의 기록)' 이야기를 통해 한의사이기도 한 시인의 경험과 몸대 대한 시적인 사유와 만나는 시간도 마련했다.

다음 공연은 7월26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8월 30일, 9월27일, 10월25일, 11월29일, 12월27일까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만날 수 있다.

김원중은 "13년간 118회의 공연을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화의 발걸음을 함께 걷고 있는 아티스트와 관객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코로나 19 종식이라는 희망을 품고 김원중 달거리의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안방에서 즐기며 올해도 평화의 길에 함께해 주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원중의 달거리공연'은 '김원중의 달거리'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홈페이지(www.kimwonjoong.co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10-3670-580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춤으로 '광주를 바라보다'

송원대 박정옥 무용단, 26일·7월 3일 공연

송원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정옥 교수 무용단이 '광주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5·18민주광장과 금남공원에서 공연을 연다. 오는 26일 오후 3시(5·18민주광장)·5시(금남공원), 7월 3일 오후 3시·5시(5·18민주광장)·7시(금남공원).

이번 선보이는 '광주를 바라보다'는 광주문화재단의 2021년 야외공연장작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국악과 성악에 한국무용, 현대무용, 힙합, 팝핀, 재즈댄스 등 다양한 춤을 결합해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제는 '일상을 예술로, 예술이 일상으로'다. 5·

18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물으며, 5·18의 아픔을 넘어 평등과 인권,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품고 아시아문화의 허브, K-POP 스타의 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광주가 되길 염원한다.

한편, 2015년 3월 창단한 박정옥 무용단은 댄스컬 '잔향', 댄스뮤지컬 'WE ARE:우리는'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예술이라는 틀을 벗어난 새로운 공연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의 062-360-5839, 010-3636-595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녹색평론' 김종철 1주기 행사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오늘 유튜브 생중계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1주기를 맞아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는 행사가 열린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한 행사가 25일 오후 2~5시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yR94X6it6ghU)를 통해 생중계된다.

1부는 '김종철과 나-우애와 현대의 기억'을 주제로 펼쳐지며 2부는 '김종철 사상의 핵심과 시의 마

음'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 강수돌 전 고려대 교수와 시인 이문재(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발제를 하며 하승우 이후연연구소 소장, 나희덕 시인(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중심

동신대학교
DONGSHIN UNIVERSITY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누군가는 가야 할 길.
동신대학교가 힘차게 열었습니다.

광주·전남 최초이자 유일한 한의과대학 설립!
광주·전남 최초이자 유일한 에너지융합대학 설립!
한국전력공사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구축!
빛가람 혁신도시 내 에너지클러스터 건립!

대학혁신지원사업 광주전남 사립대 유일 1유형 최우수 A등급!
2020 교육부 4차산업혁명혁신신도대학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사업 선정!

젊고, 실력 있고, 열정 넘치는 교수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들을 만들어갑니다.

잘 가르치고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취업에 강한 대학!

이태원 교수
컴퓨터공학과장
LG전자 출신

이동휘 교수
융합정보안전공주임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장

최진영 교수
에너지기계설비전공 주임
삼성전자 출신

정경권 교수
에너지이전공
전자부품연구원 출신

박성일 교수
정보통신공학과장
4차산업혁명
혁신신도대학사업단장

심재현 교수
신소재에너지전공 주임
삼성SDI 출신

*** 최근 2년간 주요 취업 사례**

- 한전 등 혁신도시 공기업 정규직 26명 취업
- 공무원 160여 명 취업
- 상급교사 13명 등 교사 임용 20여 명 합격
- 한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 등 보건직료 전문직 국시 합격 776명
- 2019~2021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합격자 배출

졸업생 1천명 이상 일반대학 중 최근 11년 중 9년간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광주·전남 취업률 1위!

취업에 강한 대학!

이태원 교수
컴퓨터공학과장
LG전자 출신

이동휘 교수
융합정보안전공주임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장

최진영 교수
에너지기계설비전공 주임
삼성전자 출신

정경권 교수
에너지이전공
전자부품연구원 출신

박성일 교수
정보통신공학과장
4차산업혁명
혁신신도대학사업단장

심재현 교수
신소재에너지전공 주임
삼성SDI 출신

*** 최근 2년간 주요 취업 사례**

- 한전 등 혁신도시 공기업 정규직 26명 취업
- 공무원 160여 명 취업
- 상급교사 13명 등 교사 임용 20여 명 합격
- 한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 등 보건직료 전문직 국시 합격 776명
- 2019~2021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합격자 배출

졸업생 1천명 이상 일반대학 중 최근 11년 중 9년간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광주·전남 취업률 1위!